

휴대전화 미국수출 난기류 우려

미국 ITC, 퀄컴 칩 내장제품 수입금지 ... 당장은 큰 차질 없어

미국 연방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퀄컴의 반도체칩이 내장된 신형 휴대전화의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퀄컴의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계열 등의 미국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국산 휴대전화의 미국 수출이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ITC의 결정은 퀄컴이 경쟁기업인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로, 문제가 되는 기술은 3G(세대) 휴대전화의 통화영역을 벗어날 때 배터리의 전원을 보존하는 것을 지원해준다.

다만, 휴대전화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사용해 반도체 칩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미 퀄컴과 국내 제조기업들이 특허침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새로운 칩을 가지고 휴대전화를 설계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은 있지만 결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칩을 사용하면 된다”며 “퀄컴과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6월7일 이전까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모델은 앞으로도 수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 당장은 문제가 없으며 또한 60일 안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의 파장은 미미하다는 것이 일관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새로운 칩을 적용해 휴대전화를 만들면 안정성 확보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등 미국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체 판매물량의 16% 가량을 미국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LG전자는 2006년 판매한 6440만대 중 미국에서 판매된 EVDO 이상 제품은 500만대 가량으로 8%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팬택계열은 매월 50만-60만대 가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전체 수출물량의 50% 가량이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08>